

[정책연구]

대한민국 보훈공공외교의 정책 체계 연구: 테마별 유형화 분석을 중심으로

최정식*

(국가보훈부 홍보담당관, 서강대학교 대학원 공공커뮤니케이션·공공외교 박사과정)

< 초 록 >

본 연구는 대한민국이 1975년부터 전개하고 있는 보훈공공외교 정책을 테마별로 유형화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 정책연구이다. 6·25전쟁 당시 유엔 결의에 따라 참전한 16개 전투지원국과 6개 의료지원국 총 22개국에 대한 감사와 기억을 바탕으로 하는 보훈공공외교는 국제사회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독특한 공공외교 형태로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국적 정서인 '정(情)'을 바탕으로 한 진정성 있는 감사 표현이 핵심 특징이며, 이는 단순한 의례적 기념행사를 넘어 22개 참전국과의 깊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현대적 외교 자산으로 활용하는 독특한 접근법이다. 연구방법으로는 국가보훈부의 국제보훈사업 관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질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의 목적, 대상, 추진 방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훈공공외교 정책은 ①직접 예우 및 감사(재방한 초청, 현지 참전기념사업) ②미래세대 계승(후손교류캠프, 글로벌 아카데미, 장학사업) ③기록 및 보존(디지털 아카이브, 교육자료 개발) ④의전 및 사후 안장(유해봉환, 추모음악회) ⑤정책 및 학술 교류(국제보훈컨퍼런스, 학술회의) 등 5개 주요 테마로 분류되었다. 각 테마는 서로 다른 특성과 효과를 가지면서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분석을 통해 한국의 보훈공공외교는 다차원적 사업 구조, 시간적 연속성(참전 1세대부터 미래세대까지), 정책 추진 방법의 다양성, 제도적 체계성(정부 주도와 민간 협력의 균형)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연간 5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실질적 효과성을 보여주어, 단순한 '과거 보상'을 넘어 '미래 투자'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입증한다. 이는 보훈공공외교가 대한민국 주력 공공외교 전략으로서 지속가능성과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어: 보훈공공외교, 유엔참전국, 테마별 유형화, 6·25전쟁

* tonychoi@hanmail.net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는 전통적인 정부 간 외교를 넘어 타국의 일반 국민과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외교활동을 의미한다(Nye, 2008). Joseph Nye가 주창한 소프트파워 개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국가의 힘은 군사력과 경제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매력, 정치적 가치, 정책의 정당성을 통해 다른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게 만드는 연성권력으로도 구성된다고 본다.

그러나 Nye의 소프트파워 이론은 주로 문화적 매력과 정치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역사적 경험과 정서적 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보훈공공외교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보훈공공외교는 과거의 역사적 경험과 그에 대한 ‘감사(感謝)’라는 정서적 반응을 핵심 동력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공공외교는 그 접근방식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모델로 분류될 수 있다. Melissen(2005)은 공공외교를 일방향적 정보전달 모델과 쌍방향적 관계구축 모델로 구분하였으며, Cull(2009)은 청취, 옹호, 문화교류, 교환, 국제방송의 5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 이 중에서 보훈공공외교는 ‘문화교류’와 ‘교환’ 모델에 가장 가깝지만, 역사적 경험에 기반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독특한 성격으로 인해 기존 공공외교 모델로는 온전히 포착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보훈공공외교는 6·25전쟁(1950-1953) 당시 유엔 결의에 따라 참전한 16개 전투지원국과 6개 의료지원국에 대한 감사와 기억을 바탕으로 하는 외교 활동이다. 이는 단순한 의례적 기념행사를 넘어, 22개 참전국과의 깊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이를 현대적 외교 자산으로 활용하는 독특한 접근법이다.

2) 선행연구 검토

보훈공공외교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시작되었다. 형시영과 오일환(2015)은 “보훈외교의 당위성과 방향성 탐색” 연구에서 6·25전쟁 참전국과의 혈맹관계를 미래협력의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는 보훈외교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보훈외교의 개념을 처음으로 학술적으로 정의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실증적 분석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정치학회(2015)는 “한국전 참전용사 대상 보훈외교의 경제적 가치 분석” 연구에서 보훈외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연간 5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하여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계량화했다. 이는 보훈외교가 단순한 감사 표현을 넘어 실질적 국익에 기여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중요한 연구이지만, 경제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 정치적·외교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이었다.

보훈교육연구원(2015)의 “보훈외교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는 보훈외교 정책의 발전과정과 주요 성과

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개별 사업의 성과나 효과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보훈공공외교 정책 전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형화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대한민국 보훈공공외교 사업을 테마별로 유형화하고 정책의 체계성과 전략성을 분석함으로써, 보훈공공외교의 지속가능성과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훈공공외교가 대한민국 주력 공공외교 전략으로서 갖는 가치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한민국 보훈공공외교의 주무부처인 국가보훈부의 국제보훈사업 관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질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국가보훈부, 2024). 분석 대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보훈부의 보훈공공외교사업 전체이며, 테마별 유형화를 위해 다음의 4가지 분석 기준을 설정하였다.

2) 분석틀

(1) 사업의 주요 목적 및 성격

- 시간적 지향성: 과거지향적 목적(참전에 대한 감사와 기념), 현재지향적 목적(현재의 우호관계 증진), 미래지향적 목적(차세대 관계 구축)
- 접근방식: 직접적 접근(참전용사 본인 대상), 간접적 접근(후손 및 일반국민 대상), 제도적 접근(정부 간 협력)
- 효과의 지속성: 즉시효과형(참전용사 직접 예우), 중장기효과형(교육 및 기록보존), 지속효과형(제도적 협력)

(2) 정책 대상의 특성

- 참전과의 관련성: 직접 참전세대, 관련세대(후손), 일반 국민, 전문가 집단
- 세대별 특성: 1세대(직접 참전), 2·3세대(후손), 차세대(일반인)

공공외교: 이론과 실천, 제5권 2호 (2025. 9)

- 영향력 범위: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정책적 차원

(3) 추진 방식

- 실행 주체: 정부 직접사업, 민간 위탁사업, 협력사업
- 실행 장소: 국내 추진사업, 해외 추진사업, 온라인 사업
- 실행 방법: 직접 예우형, 교육·교류형, 기록·보존형, 제도·협력형

(4) 추진 방향

- 시간적 방향성: 과거 지향, 현재 지향, 미래 지향
- 관계의 방향성: 일방향적 접근, 쌍방향적 접근, 다자간 접근
- 확장의 방향성: 수직적 확장, 수평적 확장, 질적 확장

3) 분석방법

위의 4가지 기준을 종합하여 국가보훈부의 현행 보훈공공외교 정책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각 사업의 특성과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에서는 사업별로 위의 네 가지 기준에 따른 특성을 매트릭스 형태로 정리하고, 유사한 특성을 가진 사업들을 묶어 테마별로 유형화하였다.

3. 분석 결과

1) 테마별 분석

분석 결과, 국가보훈부의 보훈공공외교정책은 1) 직접 예우 감사, 2) 미래세대 계승, 3) 기록 보존, 4) 의전 및 사후 안장, 5) 정책, 학술교류 등 5개의 주요 테마(Theme)로 분류할 수 있다.

(1) 직접 예우 및 감사 테마

이 테마는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직접 예우와 감사 표현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 사업과 참전국 현지에서 주한 공관이 주관하는 현지 참전기념사업이 있다. 재방한 초청사업은 연 3~4회에 걸쳐 유엔참전용사 및 유가족을 5박 6일간 한국에 초청하는 사업으로, 항공료와 체재비를 100% 지원하며 6.25 및 7.27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현지 참전기념사업은 22개 참전국 50개 재외공관이 주관하여 고령 등으로 방한이 어려운 참전용사를 직접 찾아가는 위로·감

테마 (유형)	주요 사업	대상	특성
직접 예우 및 감사 (Direct Honor & Gratitude)	▲ 재방한 초청사업(6.25/7.27연계) ▲ 현지 참전기념사업 (22개 참전국 현지공관)	- 참전1세대 - 참전용사 후손(유족)	- 단기적 효과 - 감성소구 - 참전용사 만족도 극대화
미래세대 계승 (Future Generation Legacy)	▲ 후손교류캠프(국내/해외) ▲ 글로벌 아카데미 ▲ 장학사업(국내/해외) ▲ 참전국 역사 교사 연합회 총회	- 참전용사 2/3세대 후손	- 장기적 효과 - 장기적 관계 구축 - 미래지향적
기록 및 보존 (Documentation & Preservation)	▲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 교육자료 발굴 및 개발 ▲ 참전 기록 수집 및 번역(발간) ▲ 공적 자료 발굴 및 포상	- 참전국 일반국민	- 객관적 및 학술적 - 교육자료화 - 역사적 정당성 확보
의전 및 사후 안장 (Protocol & Memorial Service)	▲ 유해봉환 및 사후안장 지원 (부산유엔공원 안장) ▲ 추모 평화 음악회(행사)	- 참전용사 유가족	- 참전국 자긍심 제고 - 최고 수준 예우 - 국가적 감사 표현
정책 및 학술교류 (Policy & Academic Exchange)	▲ 국제보훈컨퍼런스 ▲ 주한 참전국 대사 모임 ▲ 미래 평화 학술회의 ▲ 참전국 보훈부 정책교류(MOU)	- 참전국 정책담당자 - 학술연구자	- 전문성 확보 - 보훈공공외교 정책 지원 - 국제협력 네트워크

사 행사이다.

(2) 미래세대 계승 테마

이 테마는 참전으로 맺어진 우호 관계를 미래세대로 계승하고 확대하여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엔참전국 후손교류캠프는 국내캠프와 해외캠프로 구분된다. 국내캠프는 6~7월 중 개최되며 현충원, DMZ, 전쟁기념관 방문을 포함한다. 글로벌 아카데미는 국내 및 참전국 초·중·고등학교 간 결연을 통한 온/오프라인 공동수업과 방문 교류를 지원한다. 장학사업은 국내 유학 중인 22개 참전국 유엔참전용사 후손과 5개 저소득 참전국 참전용사 후손을 대상으로 한다.

(3) 기록 및 보존 테마

이 테마는 유엔참전용사의 공훈과 참전기록을 수집, 보존하여 동맹의 역사를 후세에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아카이브 운영은 유엔참전용사의 인터뷰와 소장자료 등 참전기록을 수집, 번역

하여 영구히 보존,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웹사이트를 운영한다. 교육자료 개발지원은 참전국 역사·사회교사가 6·25전쟁 관련 역사 교재, 교안을 직접 개발하고 역사 교사 협회를 통해 배포하는 사업이다.

(4) 의전 및 사후 안장 테마

이 테마는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최고 수준의 예우를 제공하여 참전국 정부와 국민의 자긍심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엔참전용사 유해봉환 및 안장 지원은 부산 유엔기념공원 안장을 희망하는 유엔참전용사에 대해 주한 참전국 대사관과 협업하여 유해봉환 및 안장식을 개최한다. 추모·평화 음악회는 연 1회 민간 단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이 주관하여 유엔참전용사 및 유가족을 초청하는 음악회를 개최한다.

(5) 정책 및 학술교류 테마

이 테마는 참전국과의 민·관 정책 및 학술교류를 확대하여 우호를 증진하고 보훈분야 국제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보훈컨퍼런스는 매년 9~11월 유엔참전국 정부대표단 등 보훈 관계자를 초청하여 각국 보훈제도 분석과 선진 정책 및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미래평화 학술회의는 연 2회 민간단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이 주관하여 참전국 연구자 간 연구 성과 공유 및 활성화를 위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2) 테마별 특성 분석

5개 테마별 보훈공공외교정책 사업은 각각 고유한 특성과 효과를 가진다. 직접 예우 및 감사 테마는 즉시적이고 감정적 호소력이 높아 참전용사의 만족도를 극대화하지만, 참전 1세대 고령화로 인한 시간적 제약이 있다. 미래세대 계승 테마는 지속성과 확장성을 보유하며 장기적 관계 유지 기반을 구축하며, 보훈공공외교의 미래지향적 접근을 대표한다. 기록 및 보존 테마는 객관성과 학술성을 중시하여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후세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한다. 의전 및 사후 안장 테마는 최고 수준의 예우를 통해 참전국 정부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가 차원의 감사를 표현한다. 정책 및 학술교류 테마는 제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통해 보훈공공외교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3) 교차분류를 통한 보훈공공외교 사업 분석

국가보훈부의 공공외교정책을 시기별, 대상별, 추진 주체별로 교차분류 분석을 하면 다음과 같다.

시기별 분류를 보면 정기 사업(재방한 초청, 교류캠프, 컨퍼런스), 상시 사업(장학지원, 아카이브 운영, 공적발굴), 수요 발생시 사업(유해봉환, 안장지원)으로 구분된다. **대상별 분류**에서는 1세대 참전용사 직접 예우(재방한, 현지행사), 2~3세대 후손 교육 및 교류(캠프, 장학, 글로벌 아카데미), 정책대상자 대상 정부간 협력(컨퍼런스, MOU), 학술계 대상 연구자 교류(학술회의)로 분류된다. **추진 주체별 분류**로는 정부 직접사업(재방한 초청, 현지 위로행사, 장학지원), 민간 위탁사업(역사교사 총회, 음악회, 학술회의), 협력사업(글로벌아카데미, 교육자료 개발)으로 구분된다.

추진 주체	해당 사업	특징
정부 직접 사업	▲ 재방한 초청사업 (6.25/7.27연계) ▲ 현지 참전기념사업 (22개 참전국 현지공관) ▲ 장학사업(국내/해외) ▲ 유해봉환 및 사후안장 지원 (부산유엔공원 안장)	- 직접 통제 - 정책일관성 확보 - 공적 성격 강화 - 예산집행 효율화
민간 위탁 사업	▲ 참전국 역사 교사 연합회 총회 ▲ 추모 평화 음악회(행사) ▲ 교육자료 발굴 및 개발 ▲ 미래 평화 학술회의	- 전문성 확보 - 민간네트워크 연계 - 업무 효율성 제고
협력 사업	▲ 글로벌 아카데미 ▲ 장학사업(국내/해외) ▲ 국제 보훈 컨퍼런스 ▲ 주한 참전국 대사 모임 ▲ 참전국 보훈부 정책교류(MOU)	- 상호 보완 - 지속 가능성 - 다각적/시너지

(추진 주체별 보훈공공외교사업 분류 및 특징)

4. 논의

1) 보훈공공외교의 고유성

분석 결과, 대한민국의 보훈공공외교는 기존 공공외교 이론으로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고유한 특성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적 정서인 ‘정(情)’을 바탕으로 한 진정성 있는 감사의 표현은 단순한 문화교류나 정보전달을 넘어서는 독특한 접근법이다. 이는 Nye(2008)의 소프트파워 이론이나 Cull(2009)의 공공외교 분류에서 완전히 포착되지 않는 특성으로, 역사적 경험과 정서적 유대를 핵심 동력으로 하는

새로운 공공외교 모델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2) 정책의 체계성과 전략성

5개 테마로 분류된 보훈공공외교 정책은 각각 서로 다른 특성과 효과를 가지면서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설계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시간적 연속성(참전 1세대부터 미래세대까지), 다차원적 접근(개인-사회-국가 차원), 다양한 추진방식(정부 직접-민간 위탁-협력 사업)의 균형적 구성은 보훈공공외교의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3) 실질적 효과성

한국정치학회(2015)의 연구에 따른 연간 5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가치 창출은 보훈공공외교가 단순한 감사 표현을 넘어 실질적 국익 창출의 공공외교정책임을 보여준다. 이는 보훈공공외교가 '과거 보상'을 넘어 '미래 투자'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결론 및 제언

1) 연구의 함의

본 연구는 대한민국 보훈공공외교정책을 체계적으로 5개 테마로 유형화함으로써, 이 분야의 후속 연구를 위한 분석틀을 제공했다는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 한국의 보훈공공외교정책은 '과거에 대한 감사'와 '미래로의 계승'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종합적 공공외교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테마는 서로 다른 특성과 효과를 가지면서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는 보훈공공외교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는 정책 사업의 분류와 체계화에 중점을 두었으나, 각 테마별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제한적이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각 테마별 효과성 측정 연구가 필요하다.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평가를 결합한 체계적 성과

평가를 통해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둘째, 참전국별 정책 선호도 분석이 요구된다. 22개 참전국의 문화적, 정치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 전략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참전국별 세대별 세분화된 보훈공공외교 정책 수행 전략 연구가 필요하다. 1세대 참전용사부터 차세대까지의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접근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디지털 기반 보훈공공외교 방안 연구가 중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교류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접근법이 요구된다.

3) 정책적 제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보훈공공외교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5개 테마별 사업들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래세대 계승 테마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참전 1세대의 고령화를 고려할 때, 2·3세대 후손과 차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셋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접근법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기록 및 보존 테마에서 VR/AR 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역사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다자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22개 참전국 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집단적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보훈공공외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국가보훈부 (2015). 『보훈외교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 보훈교육연구원.

국가보훈부 (2024). 『국제보훈사업 현황 및 계획』.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2025). 『2024년 국제보훈사업 성과보고서』. 국가보훈부.

한국정치학회 (2015). 『한국전 참전용사 대상 보훈외교의 경제적 가치 분석』. 한국정치학회.

형시영 · 오일환 (2015). 보훈외교의 당위성과 방향성 탐색. 『한국정치연구』, 24(2), 135-162.

<국외문헌>

Cull, N. J. (2009). Public diplomacy before Gullion: The evolution of a phrase. In Routledge Handbook of

Public Diplomacy (pp. 19-23). Routledge.

Lee, S. T., & Kim, H. S. (2021). Nation branding in the COVID-19 era: South Korea's pandemic public diplomacy. *Place Branding and Public Diplomacy*, 17(4), 382-396.

Melissen, J. (Ed.). (2005). *The new public diplomacy: Soft pow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Palgrave Macmillan.

Nye, J. S. (2008).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6(1), 94-109.

Abstract

[Policy Article]

**A Study on the Policy Framework of
South Korea's Veterans Public Diplomacy:
Thematic Categorization Analysis**

Choi, Jungsik*

(Director for Public Relations,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Republic of Korea,
Doctoral Student, College of Communication,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presents a policy research that systematically analyzes South Korea's veterans public diplomacy policy through thematic categorization, which has been implemented since 1975. Veterans public diplomacy, based on gratitude and remembrance toward 22 countries—16 combat support nations and 6 medical support nations—that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under UN resolutions, represents a unique form of public diplomacy rarely foun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characterized by sincere expressions of gratitude rooted in the Korean sentiment of “jeong” - a distinctive Korean emotional bond. This approach goes beyond simple ceremonial commemorative events to form deep emotional ties with the 22 participating countries and utilizes these relationships as modern diplomatic assets through a unique methodology. The research methodology employed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based on official data from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ternational veterans affairs programs, comprehensively analyzing the purpose, targets, and implementation methods of various projects. The analysis revealed that veterans public diplomacy policy can be classified into five major themes: ① Direct Honor & Gratitude (revisit invitation programs, local commemoration events) ②Future Generation Legacy (descendant exchange camps, global academy, scholarship programs) ③Documentation & Preservation (digital archives, educational material development) ④Protocol & Memorial Service (repatriation of remains, memorial

* Choi Jungsik, tonychoi@hanmail.net

concerts) ⑤Policy & Academic Exchange (international veterans conferences, academic symposiums). Each theme possesses distinct characteristics and effects while creating synergistic outcomes through overall harmony. The analysis confirmed that South Korea's veterans public diplomacy demonstrates multi-dimensional project structures, temporal continuity (spanning from first-generation veterans to future generations), diversity in policy implementation methods, and institutional systematicity (balanced approach between government leadership and private cooperation). Particularly noteworthy is its substantial effectiveness in generating economic value exceeding \$500 million annually, proving its strategic value as a "future investment" beyond mere "past compensation." This suggests that veterans public diplomacy possesses sustainability and expandability as South Korea's main public diplomacy strategy.

Keywords: *Veterans Public Diplomacy, UN Participating Countries, Thematic Categorization, Soft Power, Korean War*

투고일: 2025. 08. 10.
최종심사일: 2025. 09. 05.
게재확정일: 2025. 09. 15.